

#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변수\*

## The Related Factors of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amily Financial Risk Safeguards\*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학과  
교수 박명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Kyoungju)

Professor : Park, Myung soo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assess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amily financial risk safeguards and (2) to identify demographic variables, financial security and financial communication which were an influence on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amily financial risk safeguar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98 housewives using an on-line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inancial risk safeguards was lower than the median(2.80). Especially,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inancial risk safeguard for children's education had the highest score. Second, the variables which were an influence on the financial communication of husbands and wives were 'financial security' and 'years which they have been married'. Third,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inancial risk safeguard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financial security and the financial communication of husbands and wives.

**주제어(Key Words):** 재무위기 대비(financial risk safeguards), 가계 재무 안전성(financial security),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financial communication of husbands and wives)

Corresponding Author: Myungsook Par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Kyoungju), Suckjang-Dong, Kyoungju, 780-714, Korea Tel: 82-54-770-2269 Fax: 82-54-779-2527, E-mail: pms@dongguk.ac.kr

\* 본 연구는 2001학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I. 서론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대비 2000년 24.5%에서 2001년 28%, 2002년 상반기까지 34.3%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 9월말 현재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245만 5천명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매월 5만-7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외경제 2002년 11월 18일).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며, 가계의 재정적 문제는 가정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곧 가정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경제적 위기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고 등 개인의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도 발생하지만, 특정 개인 혹은 가계의 잘못된 재무 관리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는 경제적 위기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더불어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인 미시적 분석 등 양쪽 측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거시적 접근인 환경적 요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개인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반면, 미시적 접근인 개인적 요인 분석은 위기관리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개인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수준에 초점을 두고 연구대상자들의 위기관리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 가계 재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초기 연구들은 주로 금전관리 형태 등 기술적 연구에 주력해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재무관리나 재무만족도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리과정에 심리적 변수와 더불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가 재무관리와 관련된 의견을 상호 교환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90년대 후반부터는 재무관리와 관련된 연구에서(황덕순, 정운영, 2001; 김효정, 1999; 김정훈, 1995)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위기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종속변수로, 인구통계적 변수, 가계 재무안전성과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를 영향변수로 두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II. 관련연구 고찰

### 1. 가계 재무안전성

가계 재무안전성(financial security)이란 어떠한 불의의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계가 그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김경자, 1993; 이연숙 등, 2000), 이는 위험에 대비하여 가계의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사전적 의미의 지표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가계의 소득, 저축, 자산, 부채 등 산술적 크기를 기초로 절대액을 측정하는 방법과 재무비율을 근거로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재무비율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Kapoor와 그의 동료들은(1996) 순자산과 더불어 총자산/총부채 비율, 유동자산/단기부채 비율, 투자자산/순자산 비율 등을 들고 있으며, Garman과 Fargue(1994), Waddell(1995) 등은 Kapoor와 그의 동료들의 의견과 더불어 연부채상환금/총연간 소득 비율, 연부채상환금/총연간세후 소득 비율, 주택의 부채상환금/총소득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기춘 등(1998)은 가계 재무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상태와 더불어 가계수지 상태를 같이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지표로 유동성 비율 즉 유동자산/월지출 비율을 첨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본다면 이론적으로는 가계 재무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득, 부채, 자산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의 크기와 규칙성, 부채의 크기 및 상환기간, 자산 규모 및 형태 와 더불어 재무비율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들 변수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자신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변수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무비율이 측정의 정밀성과 비교가능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는 있으나(양정선, 1996; 최윤지, 1998),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재무비율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그 기준이 외국실정에 맞게 선정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우리나라 가계에 적용하여 가계의 재무안전성을 평가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정운영, 황덕순, 2002).

이에 본 연구는 가계 재무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계의 소득, 저축, 자산, 부채의 산술적 크기를 기초로 한 절대액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소득인 경우는 월 소득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가계의 경제적 관리를 위해서는 소득이 고정적 시기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소득의 액수가 일정한 지 등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여 '소득의 크기'와 더불어 '소득의 규칙성'도 고려하였다. 부채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제외한 개념으로 측정하였고, 자산의 경우는 총자산의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 2.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특히 부부의 의사소통은 가정에서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게되며 가정생활에서 적합한 역할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결혼생활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Mugenda, Hira & Fanslow, 1988; 송말희, 1990; 임정빈 외, 2001)에서 밝혀진 바 있다.

가계 재무관리에서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을

영향 변수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90년 대 후반부터로 이는 재무관리가 소득,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객관적 경제 지표 이외에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가계라 하더라도 관리과정에 따라 가계의 재정상태(또는 재무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가계 재무관리 부분에서 부부의 의사소통 빈도를 영향변수로 설정한 연구로는 김효정(1999, 2000), Williams와 Berry(1984), Mugenda 등(1999)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한 연구로는 황덕순, 정운영(2001, 2002),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을 고려한 연구로는 김정훈의 연구(1995)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부부간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의사소통 방식이 효율적일수록 재정적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유형이 권위형이거나 희생형일 경우 재정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의사소통 내용을 의사소통의 빈도, 의사소통의 유형 및 의사소통의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재무관리와 관련된 투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범위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부부간 의사소통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부부간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의 일치하는가의 통합된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관리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변수를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의 의사소통 일치도로 선정하고, 부부의 의사소통 일치도가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 3.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

위기(risk)란 손실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 발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확률 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이연숙 등, 2000),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여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관리는 가계 재무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렇다면 가계 재무관리에서 위기관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Davis와 Helmick(1985)은 위기관리를 재정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재정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위기관리 개념으로 보고 있다. Titus, Fanslow 그리고 Hira(1989)도 그들의 연구에서 '긴급한 지출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기관리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Davis등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김정숙(1996), 김효정(1999), 이상협(1999)은 재정만족도를 측정하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비용을 충당할 능력'을 위기관리 개념과 동일시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운영, 황덕순(2002)은 가계가 직면하는 위험을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기초위험, 신용집중 위험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합산한 개념을 총 위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홍향숙, 이기춘(1999)은 가계의 위기관리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험가입과 관련된 행동으로 규정하여 '보험관련 정보 수집', '위험대비 계획 수립', '보험에 가입', '보험료 납입확인', '가입한 보험의 적절성 평가' 등 다섯 가지 요인을 합한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반면 안승철, 김년희(1999)는 '위험대비'를 주택마련, 자녀교육, 노후대비 등과 더불어 재정만족도 측정을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험대비'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어 있지 못하며, 재무만족과 관련된 황덕순, 정운영(2001)의 연구에서도 재무만족도 측정을 위한 구성요인으로 위험관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위험관리에 대한 개념규정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계 재무관리에서의 위기관리 개념은 '보험가입'과 관련된 구체적 개념으로 보는 연구도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비상 시 재정적 지출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각종 사건에 의하여 계속 위협을 받고 있고 미리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가계의 경제적 안정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볼 때 가계재무관리에서의 '비상'의 개념은 결국 가계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정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가계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정문제들에

대한 대비로 보고 이를 이종혜(1993), 이연숙(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실직에 대한 대비',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 '일상생활 자급에 대한 대비', '자녀교육자금에 대한 대비', '과중한 의료비용에 대한 대비' 등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가계 재무안전성,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 및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계 재무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 저축, 자산, 부채의 산술적 크기를 기초로 한 절대액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소득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의 크기와 더불어 소득의 규칙성 여부를 살펴 보았다. 가계 재무의 안전성은 소득의 크기와 더불어 규칙적인 소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득의 규칙성은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와 액수가 일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두 개의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은 규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은 월 저축액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부채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제외한 부채의 개념으로 측정하였고, 자산은 총 자산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는 Waddell(1998), 김정훈(1995), 김효정(199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자녀의 용돈액수와 사용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 정도', '노후의 생활비 마련에 대한 의견 일치 정도', '저축이나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의견 일치 정도', '신용카드 사용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 정도' 등 총 4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일치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이

중혜(1993), 이연숙(2000)등의 연구를 참고로 '실직에 대한 대비', '자녀교육 자급에 대한 대비', '일상생활 자급에 대한 대비', '자녀교육자급에 대한 대비', '과중한 의료비용에 대한 대비' 등 총 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소비자학 전공교수 2인과 대학원생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부부간의 의사소통 일치도의 알파값은 .67로,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83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는 인정되었다.

- 본 논문의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변수와 가계재무안전성에 따라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인구통계적 변수, 가계재무안전성과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에 따라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20대~40대 주부로서 2001년 9월 15일~30일에 걸쳐 인터넷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총 619명의 응답자료 중 내용 기제가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598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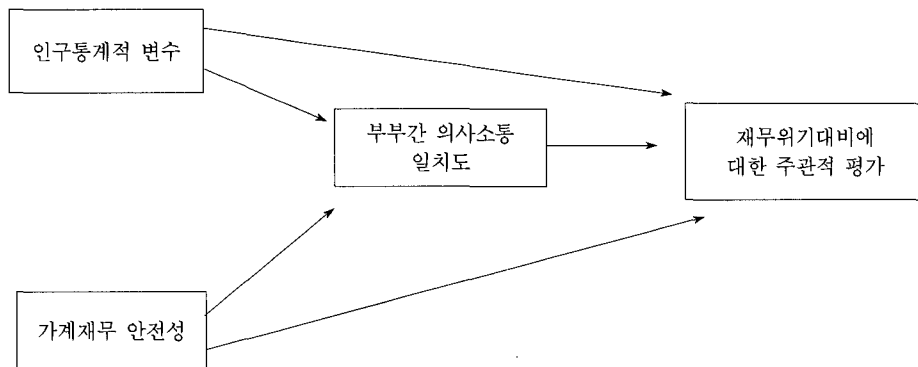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계 재무안전성 측정을 위한 소득, 저축, 자산, 부채의 평균적 크기는 <표 1>, <표 2>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주부의 연령이 30-39세가 59.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38.8%, 대졸이 39.6%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은 151-250만원이 37.6%, 150만원 미만인 26.9%, 251-350만원이 25.4%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년수는 3년 이하 17.7%, 4-6년 26%, 7-9년 23.4%, 10년 이상이 32.4%를 보여주었다. 자녀수는 2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98

변 수	범 주	빈도(%)
연 령	29세 이하	180( 30.1)
	30세-39세 이하	358( 59.9)
	40세-49세 이하	59( 9.9)
	계	597( 99.9)
교육수준	중 졸	5( 0.8)
	고 졸	232( 38.8)
	전문대	124( 20.7)
	대학이상	237( 39.6)
계	598(100.0)	
자녀수	없음	69( 11.5)
	1명	179( 29.9)
	2명	321( 53.7)
	3명 이상	29( 4.8)
계	598(100.0)	
월소득	150만원 미만	161( 26.9)
	150 - 250만원 미만	225( 37.6)
	250 - 350만원 미만	152( 25.4)
	350만원 이상	59( 9.9)
계	597( 99.9)	
결혼년수	3년 미만	106( 17.7)
	3 - 6년 미만	158( 26.4)
	6 - 9년 미만	140( 23.4)
	9년 이상	194( 32.4)
계	598(100.0)	

\* 항목에 따라 결측 값이 존재함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소득, 저축, 자산, 부채의 평균 크기 n=598

변 인	평 균(만원)	중앙치(만원)
월 소득액	222	200
월 저축액	62	50
총 자산	10,489	7,500
총 부채액	1,443	500

명이 5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가계재무 안전성 측정을 위한 소득, 저축, 자산, 부채의 평균 크기는 월 소득액은 평균 222만원이고, 월 저축액은 평균 62만원이며 총 자산은 평균 1억 489만원이며 총 부채액은 평균 1,443만원으로 나타났다.

2.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어느 정도인가?

조사 대상자들의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점수는 비교적 낮은 점수(2.80)를 보여주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항목별 점수의 분포가 최저점수 2.15에서 최고점수 3.42를 보이므로서 재무위기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항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각 항목별 주관적 평가는 자녀교육자금에 대한 대비(3.42)와 실직에 대한 대비(3.37)가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교육비에 대한 관심과 실직에 대한 불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실직에 대한 불안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고, 더불어 이제는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졌는데 홍향숙, 이기춘(1999)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가계의 36.5%가 현재 가장 실직이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후생활과 의료비용에 대한 대비는 각각 2.15, 2.3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층이 20대~40대 주부로서 비교적 젊은 층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준비 개념도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제도의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

〈표 3〉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1. 실직에 대한 대비	3.37 (1.22)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2.15 (1.03)
3. 일상 생활자금에 대한 대비	2.71 (1.16)
4. 자녀교육자금에 대한 대비	3.42 (1.11)
5. 과중한 의료비용에 대한 대비	2.34 (1.15)
전 체	2.80 (0.69)

한 부양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인구 통계적 변수와 가계 재무안전성은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구 통계적 변수와 가계 재무안전성이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들간의 상관계수와 VIF(분산팽창인자) 값을 측정하였다. 보통의 경우 상관계수 값이 0.70이상인 경우(허경옥 외 4인, 2000)와 VIF값이 10이상인 경우는(송문섭 외 1인, 1997) 다중공선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형관계가 강한 변수를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귀계수 해석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나 아니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사용은 독립변수들이 타당한 지표로 인정받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결혼년수와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간의 독립성이 대체로 인정되었고, 독립변수로서의 타당성도 인정되므로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만 연령과 결혼년수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847,  $p < .01$ ), 중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판단되어 두 변수 중의 한 변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계 재무행동과 관련해서는 연령보다는 결혼년수가 설명력 있는 변수라고 판단되어 연령을 제외한 결혼년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한 공선성 통계량은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인구통계적 변수와 부부의 재무관리의 의사소통 일치도와는 관계는 결혼년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p < .05$ ) 결혼년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일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행동과 관련하여 재무의사소통을 조사한 황덕순, 정운영(2001)에 의하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 의사소통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그 이유를 20대인 경우는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방식이 미흡하기 때문이고, 50대 이상은 부부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50대 이상의 부부가 효율적 의사소통 없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정형화됐고 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소통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결혼년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의사소통 효율성을 측정한 임정민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소통 효율성을 토론여부나 자기 개방 정도 등 의사소통의 일치여부가 아니라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진다.

가계 재무안전성이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가계재무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인 중 소득의 규칙성, 월 저축액 그리고 총 부채액 세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와 액수가 규칙적일수록, 월 저축액이 적을수록, 총 부채액이 많을수록 재무관리와 관련하여 부부의 의사소통 일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소득 액수와 시기가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지의 여부가 재무관리와 관련

<표 4> 공선성 통계량

변 수	공차한계	VIF
결혼년수	.269	3.715
교육수준	.870	1.150
자녀수	.694	1.441
월소득의 크기	.460	2.173
소득의 규칙성	.935	1.069
월저축액	.526	1.901
총자산	.733	1.365
총부채액	.946	1.057

〈표 5〉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와 관련변수

독립변수	b	$\beta$
인구통계적 변수		
결혼년수	6.226E-02	.100*
교육수준	.154	.041
자녀수	.136	.031
가계재무 안전성		
월 소득크기	-1.4E-03	-.041
소득의 규칙성	.708	.232***
월 저축액	-9.8E-03	-.159**
총 자산	3.413E-06	.014
총 부채액	9.771E-05	.087*
상수 8.141		
n = 598    R <sup>2</sup> = 0.124    F값 10.430***		

\*\*\* p&lt;.001 \*\* p&lt;.01 \* p&lt;.05

하여 부부의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규칙적인 소득은 소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따라서 돈의 쓰임에 대한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결정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 저축액이 적을수록, 그리고 총 부채액이 많을수록 재무문제와 관련하여 부부의 의사소통이 일치되고 있음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가계는 돈을 사용하기 전에 돈의 쓰임에 대해 부부간의 일치를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거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약 12%로 나타났다(표 5).

#### 4. 인구 통계적 변수, 가계 재무안전성,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는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상관계수와 VIF값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독립변수간의 독립성과 타당성이 대체로 인정되었다. 다만 연령과 결혼년수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표 6〉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 변수

독립변수	b	$\beta$
인구통계적 변수		
결혼년수	-5.7E-03	-.045
교육수준	-3.6E-02	-.048
자녀수	2.296E-02	.025
가계재무 안전성		
월 소득크기	-2.316E-04	-.033*
소득의 규칙성	7.381E-02	.119*
월 저축액	-2.0E-03	-.160
총 자산	-5.0E-06	.101
총 부채액	2.117E-05	.093**
부부 의사소통 일치도	7.381E-02	.119***
상수 2.425		
n=598    R <sup>2</sup> =0.152    F값 11.69 ***		

\*\*\* p&lt;.001 \*\* p&lt;.05 \* p&lt;.01

있다고 판단되어 연령대신 결혼년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인구통계적 변수 중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재무안전성을 평가하는 요인 중에는 월 소득의 크기, 소득의 규칙성, 총 부채액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소득과 재무관리와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득이 재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Danes 외 1989; Mugenda 외 1990; 고보선, 이영호 1995)와 다른 하나는 재무관리 행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Titus 외 1989; Godwin과 Koonce 1992; Godwin 1994)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규칙적으로 들어올수록 그리고 총 부채액이 많은 가계가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규칙적으로는 들어오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총 부채액이 많은 가계가 경제적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그 결과 이에 대한 재무위기 대비가 높게 나온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총 부채액이 많다는 의미는 월 소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가계가 '자녀교육 자급에 대한 대비 수준'이나 '실직에 대한 대비 수준' 등으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빚을 진 이유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와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의 관계는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을수록 재무위기 대비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을 재무관리 행동의 투입변수로 설정한 많은 연구결과(김효정, 1999; 정운영, 황덕순 2002)에서 의사소통의 빈도가 높을수록 가계재무 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과 재무관리에서의 갈등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재정만족도가 낮다는 박미금(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 연구결과는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을 위해 부부간의 의사소통 일치도의 중요함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약 15%였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 가계의 전체적인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다소 낮은 점수(2.80)를 보여주고 있다. 항목별로는 실직에 대한 대비(3.37), 자녀교육 자급에 대한 대비(3.42)가 일상생활 자급에 대한 대비(2.71), 노후생활(2.15)과 의료비용(2.34)에 대한 대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큰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생활에 대한 재무위기

대비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 부분에 대한 위기 의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재무설계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노부부의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70% 정도가 필요하며 혼자 살게 될 경우에도 현재 생활비의 50%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이연숙 등, 2000). 또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야되는 생활자금의 액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연금이나 기타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때, 20대~40대 주부들이 노후생활이나 의료비용에 대한 대비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설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가치관 교육과 더불어 구체적인 재무설계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기능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적 변수로는 결혼년수만이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는데 결혼년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재무 안전성과 부부의 의사소통 일치도와 관계는 가계재무 안전성 평가요인 중 소득의 규칙성, 월 저축액 그리고 총 부채액 세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소득 액수와 시기가 규칙적일수록, 월 저축액이 낮을수록 그리고 총 부채액이 많을수록 재무문제와 관련된 부부의 의사소통 일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계재무 안전성과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계재무 안전성과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의 관계에서는 소득의 크기가 작을수록, 소득의 규칙적으로 들어올수록, 총 부채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을수록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규칙적으로 들어오지만 소득의 액수가 많지 않고, 총 부채액이 많은 가계가 경제적 위기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결과 위기에 대한 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총 부채액이 많은 이유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빚을 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든나 본 연구에서는 빚을 진 이유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을수록 재무위기 대비 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계 재무관리를 체계론적으로 접근할 때 동일한 투입요소라 하더라도 변환요소에 따라 산출물은 달라지는데, 가계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식 등은 변환요소로서 산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경자; 박명숙; 정운영, 2002). 지금까지 재무관리 부분에서 부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의사소통을 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의사소통 빈도, 효율성, 유형 등과 이와 관련된 변수와의 관계를 보고 있으나 왜 빈도가 낮은 지, 왜 비효율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부의 의사소통'을 중심 주제로 설정하여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부부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하나의 기술이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정학 차원에서 확장서비스(extension service)의 한 형태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가계재무 안전성 측정을 위해 소득, 저축, 자산, 부채의 절대액을 측정하였으나 저축 목적이 무엇인지, 빚을 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병행된다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다 정교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례연구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계재무 안전성 측정을 위해서는 절대액을 측정함으로써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방법과 재무비율을 근거로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 각각 장,단점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보다 타당성 있는 척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척도개발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들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만을 조사했지 위기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직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녀교육 자급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위기관리 방안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 요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 참고문헌

- 고보선, 이영호(1995).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 김경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단기 지표와 장기 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07-118.
- 김경자, 박명숙, 정운영(2002). 가계재무상태와 재무관리 행동 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28.
-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 김정훈(1995). 부부사이의 재정 의사소통과 재정만족도: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에 따라. 소비자학 연구, 6(2), 1-14
-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

- 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 내외경제신문. 가계대출 증가 영향. 2002년 11월 18일
-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숙대 박사학위논문*.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 송문섭, 조신섭(1997). 통계자료 분석. 자유아카데미.
- 안승철, 김년희(1999). 도시가계의 재정만족도 관련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7(7), 111-125.
- 양정선(1996). 산술적 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춘 외 5인(1998). 소비자재무 설계론. 학현사.
- 이상협(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141-153.
- 이연숙, 양세정, 주인숙(2000). 가계재무관리의 이해. 학지사
- 이중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조미환, Idud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과일 행동, 가정생활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정운영, 황덕순(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 행동과 재무건전성. *대한가정학회지*, 40(2), 115-130.
- 최윤지(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중년기와 노년기를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허경옥, 배미경, 김기옥, 이승신, 박선영(2000). 생활과학 연구방법과 통계분석. 교문사.
- 황덕순, 정운영(2001). 재무 태도와 재무 의사소통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9(8), 121-135.
- 홍향숙, 이기춘(1999).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9), 39-56.
- 홍향숙, 이중혜(1999). 개인·가계·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 영역별 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2-24.
- Danes, S. M., E. W. Morris (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3), 205-215.
- Davis, E. P. & S. A. Helmick (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23-124.
- Garman, E. T. & R. E. Forgue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MA: Houghton Mifflin.
- Godwin, D. D. (1994). Antecedents and consequence of newlywed's cash flow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161-190.
- Godwin, D. D. & J. C. Koonce (1992). Cash flow management of low-income newlyw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7-42.
- Kapoor, J. R., L. R. Dlabay & Hughes, R. J. (1996). *Personal Finance*. 4th ed., Chicago, IL: Irwin.
- Mugenda, O. M., Hira T.K. & Fanslow A.M. (1988). Effect of Spousal Communication on Household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ituation and Quality of Life. *ACCI Proceedings*, 151-154.
- Mugenda, O. M., Hira T.K. & Fanslow A.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4-360.
- Titus, P. M., Fanslow, A. M. & T. K. Hira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Waddle, F. E. (1995). *Financial portfolio: Your Financial Map and Compass*. Auburn, AL: Genesis-The Financial Service Press.

Williams, F. L. & Berry R. (1984). Intensity of Family disagreement over finances and associated

fact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33-53.

(2003년 1월 27일 접수, 2003년 10월 6일 채택)